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17.(수) 10:00 배포 2023. 5. 16.(화) 16:00

K-컬처의 파격적 에너지 뿜어내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첫 삽 뜨다

- 5. 17. 건축가와 젊은 문화예술인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콘셉트의 착공식 개최
- 박보균 장관 “새로운 문화예술의 핫 플레이스이자 가장 실험적인 예술을 창조하는 공간이 될 것”

수명이 다한 서울화력발전소 4, 5호기가 K-컬처의 파격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되살아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5월 17일(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특히 과거 전형적인 착공식의 프레임을 깨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설계한 건축가(매스스터디스 조민석 대표)와 젊은 문화예술인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진행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콘셉트를 위해 박보균 장관은 문화예술인이 원하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비전에 답변하는 조연 역할을 자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보균 장관과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조민석 대표,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 윤길호 사장을 비롯해 문화예술인, 신진건축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먼저 조민석 대표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추진 경과와 설계 콘셉트를 발표했다. 조 대표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와 젊은이들의 진취적인 미래가 함께하는 곳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레리나 김주원, 박그림 작가, 이유정 소플(배리어프리 콘텐츠 기업) 대표, 국악인 백현호 등 문화예술인들은 이 공간이 MZ세대 예술인들에게 파격적인 실험예술의 창작 기회와, 열정과 투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를 제공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건축가와 젊은 문화예술인의 열망에 화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력발전소를 문화예술시설로 탈바꿈했다고 해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테이트모던의 한국판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테이트모던이 미술관이라면, 당인리는 모든 예술 장르의 창작과 공연·전시가 가능한, 독창적이면서도 최선과 최신을 추구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예술의 핫 플레이스이자 가장 실험적인 예술(Modern and Contemporary)을 창조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4호기 문화시설, 5호기 역사 교육공간으로 새 탄생, 2025년 개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부지면적 81,650㎡, 건물 연면적 25,532㎡(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15년에 폐지된 발전소 4호기는 2개의 전시실(1,743㎡), 공연장(2,273㎡, 블랙박스* 형태), 프로젝트실(915㎡, 창작공간) 등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되고, 2019년에 폐지된 5호기(12,553㎡)는 근대 산업유산으로 원형 보존해 대한민국 최초 화력발전소의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중 외부 18m(5층) 높이 4·5호기의 옥상은 하나로 연결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옥상광장(‘당인리 포디움’)으로 만들어 마로니에공원 같은 열린 공간으로 설계된다. 이동식 화단(플랜터)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버스킹 공연, 야외패션쇼 등이 이루어지고 청년 푸드트럭 등 소상공인 중심의 시설이 자리잡은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블랙박스 형태: 직사각형의 상자형 공간 속에 이동식 객석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공연에 따라 무대와 객석의 형태를 원하는 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형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착공식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2025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붙임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요 및 설계(안)
따로 붙임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감도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김홍필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김준환 (044-203-2758)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당인리 문화발전소 개요 및 설계(안)**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요

부지면적 81,650㎡, 건물 연면적 25,532㎡(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15년 폐지된 발전소 4호기는 2개의 전시실(1,743㎡), 공연장(2,273㎡, 블랙박스 형태), 프로젝트실(915㎡, 창작공간) 등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되고, 2019년 폐지된 5호기(12,553㎡)는 근대산업유산으로 원형 보존하여 대한민국 최초 화력발전소의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교육공간이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감도

테이트모던 조감도

□ 옥상광장(포디움)

외부 18m(5층) 높이에 4·5호기의 옥상을 하나로 연결하여 조성될 옥상광장(당인리 포디움)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옥상 위 마로니에공원 같은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이동식 플랜터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청년 푸드트럭 등 소상공인 중심의 시설, 버스킹이나 야외패션쇼, 스트리트 아트 등이 이루어지는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5호기 옥상을 연결한 당인리 포디움

당인리 포디움 조감도

□ 공공보행로(강변 프롬나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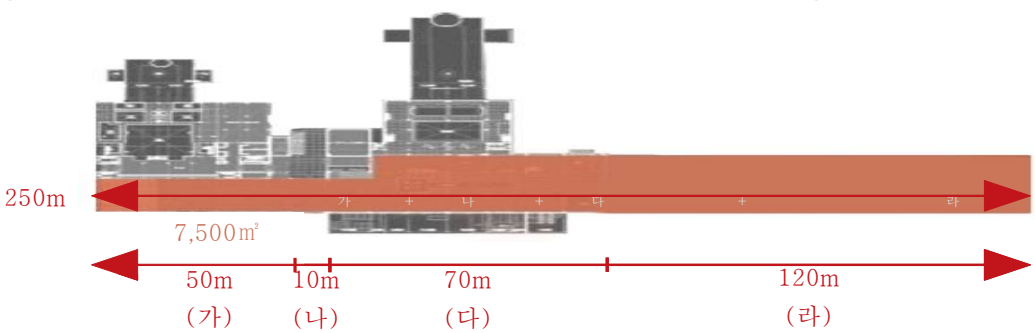
건물 외벽 지상 4층에 조성할 공공 보행로(강변 프롬나드)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주변의 내·외부 공간들을 3차원적으로 연결하는 건축화된 산책로로써, 보행 시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반대편으로는 5호기 내부에 보존된 원형 발전설비 관람이 가능하다.

강변북로쪽에서 본 강변 프롬나드

강변 프롬나드에서 5호기 발전 설비 관람

□ 4호기, 5호기 터빈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4, 5호기 터빈홀은 수직 리프트 도어와 셔터로 확장과 변화가 가능하게 유연하게 설계되어 내외부 공간을 합쳐 길이 250m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테이트모던 터빈홀(155m)보다 약 1.5배 더 긴 공간으로, 비엔날레나 아트페어, 음악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



□ 5호기 에스컬레이터

5호기 동측 광장 1층에서 옥상 포디움까지 터빈홀과 보일러동 사이를 관통하는 에스컬레이터는 5호기의 발전시설 관람은 물론 포디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퐁피두 센터의 에스컬레이터와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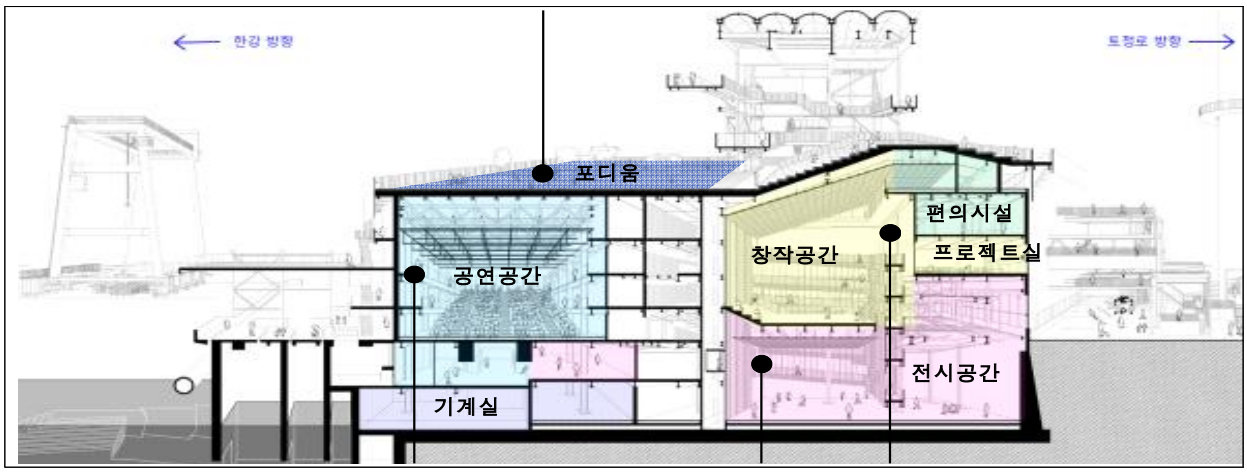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퐁피두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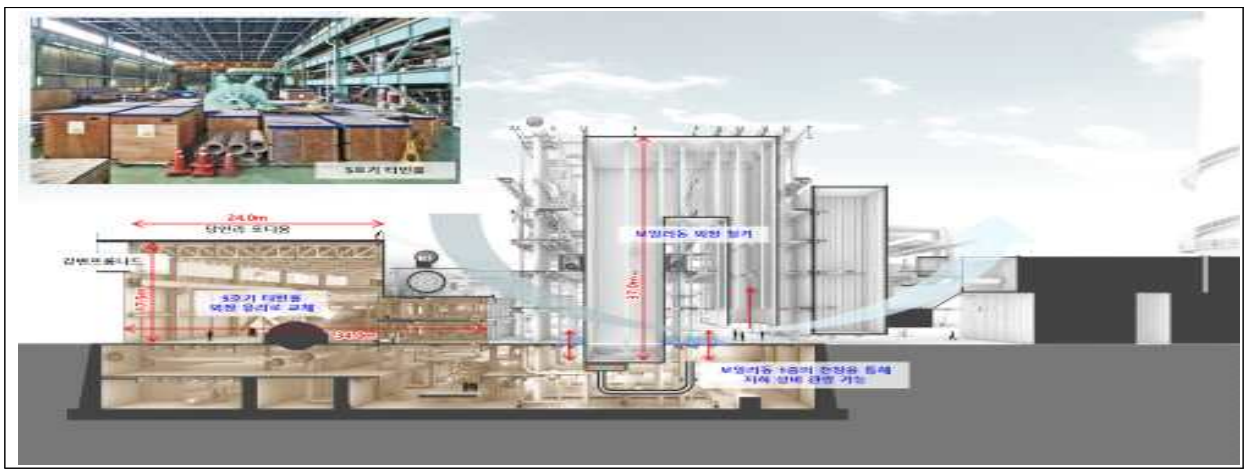
□ 4호기 전망대(하이퍼파빌리온)

4호기 보일러동에 들어설 전망대(하이퍼파빌리온)는 지상 40미터 높이로 뉴욕 VESSEL 전망대보다 6미터 낮은 수준으로 특별한 조망을 제공한다.

□ 4호기 공간 구성

4호기 내부는 ▲ 터빈홀 공간을 활용한 블랙박스 공연장, ▲ 높은 층고의 전시공간, ▲ 창작공간과 프로젝트실을 연계한 다양한 예술활동 공간으로 구성된다. 모두 장르 구분이 없는 새로운 예술적 실험 공간이다.



□ 5호기 공간 구성

보존되는 5호기의 터빈홀은 유리로 외장을 교체하고, 보일러동은 외장을 철거하여 외부에서 발전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일러동 바닥에 천창을 설치하여 지하 설비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